

제주학 연구에서 지리 분야의 연구 성과와 과제*

— 해방 이후를 중심으로 —

손 명 철**

A Geographical Research Trend on Jeju Island Since 1945*

Son Myong Cheol**

요약: 해방 이후 제주도에 대한 지리학 분야의 연구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최근에는 급속한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제 식민지의 유산을 벗어나 한국의 지리학자에 의한 제주도 연구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연구 주제가 매우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융합한 연구들이 다수 등장하고 사회적 응용성과 적실성을 강화한 연구들이 발표됨으로써 질적, 구조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 준다. 그러나 아직 다른 분야에 비해 지리학 분야의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며, 제주도내에 지리학 연구 기반의 확충과 연구 인력풀의 확대, 지역지리 연구의 활성화, 학제적·통섭적 연구의 강화 등 몇 가지 과제도 안고 있다.

주요어: 제주학, 제주지역연구, 지역지리, 통섭적 연구

Abstract: In a quantitative respect, the geographical research on Jeju Island has increased steadily since 1945, and recently it has changed in a qualitative and structural respect. Some geographers have studied Jeju Island for the first time from 1960s. Especially from 2000s many geographers have investigated very various themes. Also they have researched Jeju Island integratedly and in a social relevant respect. But the geographical research on Jeju Island has a number of task: to expand a base of geographical research in Jeju Island, to invigorate regional geography of Jeju Island, and to support a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or consilience.

Key Words: Jejustudies, Regional Study of Jeju Island, Regional Geography, Consilience Studies

I. 머리글

1. 연구배경과 목적

제주는 지리학 연구, 특히 지역지리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한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제주는 육지와 격리된 섬이라는 자연적 조건과 조선 후기 출륙금지령 같은 역사적 상황 등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반개방체계(semi-opened system)로 존재해온 곳이다. 이는 지역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육지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거나 그 영향력이 미약할 개

연성을 높여준다.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도서(島嶼)라는 조건은 지역지리 연구의 오랜 난제 가운데 하나였던 지역 경계선 획정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는 한반도의 가장 남쪽에 자리 잡은 화산섬으로 아열대 기후대에 속하기 때문에 육지부와는 색다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고유한 언어적, 문화적 특성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지역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리학, 특히 지역지리 연구의 측면에서 볼 때 제주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교수(Professor, Geography Education Major, Jeju National University, sonmy@jejunu.ac.kr)

연구기관 수준에서 제주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67년 제주대학교에 설립된 제주도문제연구소를 통해 시작되었다. 이 연구소는 이후 탐라문화연구소(1976)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현재는 탐라문화연구원(2014)으로 개칭되었다. 1982년부터는 학술지 『耽羅文化』를 창간하여 제주도 연구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地域學의 중흥이라는 가치를 들고 출범한 濟州學會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1978년 濟州島研究會로 시작하여 그 동안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濟州島’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왔다. 1984년부터는 종합학술지 『濟州島研究』를 발간함으로써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과 함께 제주도 연구의 양대 거점을 형성하였다.

제주도가 특별히 학술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한반도 육지부와 멀리 떨어진 도서로서 독특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고유한 생활문화를 형성해 온 독자적인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밝히고자 일찍이 복합학문으로서의 濟州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제 탐라문화연구원 설립 반세기와 제주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그간의 각 분야별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과제를 도출하며 미래를 전망하는 일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그 동안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제주도 및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신행철, 1988; 유철인, 1996; 이상철, 1998; 박찬식, 1998; 염미경·한석지, 2007), 이들 연구는 주로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분야에 초점을 둔 것으로 지리 분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었다.

지리학(geography)은 오랜 전부터 한 지역의 자연과 인문, 사회 현상을 통합적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 프랑스의 비달(Paul Vidal de la Blache)은 ‘지리학이 학문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은 현상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Church, 1951). 이와 같은 지리학의 학문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학계에서 널리 논의되고 있는 학제간 연구나 학문 융·복합은 지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오래된 미래’일 수도 있다.

제주도는 오랫동안 지리학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연구 대상이 되어 왔으나, 아직 다른 학문 분야와 비교할 때 뚜렷한 연구 성과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국내 학계와 제주도 내에 지리학 전문 연구자가 많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주대학교의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 지리 전공이 신설되어 지리학을 전공한 연구자가 교수로 충원되고 교육 및 연구 여건이 구비되면서 본격적인 제주도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송성대 등, 2010). 본 논문은 해방 이후 지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제주도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주요 과제를 도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제주학의 한 분야로서 지리학 연구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연구의 한계

해방 이후 제주도에 대한 지리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http://riiss.kr>)를 활용하여 연구물을 검색하였다. 검색키워드 ‘제주, 지리’를 입력하여 통합 검색했을 때 총 3,088건(2018년 6월 1일 현재)의 연구물이 제시되었다. 학위논문 479건, 국내학술지논문 629건, 학술지 1건, 단행본 1,930건, 보고서 등 49건이 그것이다. 이들 중 아래 원칙과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선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포괄성의 원칙: 가능하면 지리학 내 하위 분야 모두를 포괄하며, 논문·단행본·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광범하게 포함한다. 단 지리교육 분야는 제외한다.

둘째, 전문성의 원칙: 학위논문은 박사학위논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심사과정을 거친 전문학술지(예컨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본 논문이 제주학 연구의 일환으로 연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耽羅文化』와 『濟州島研究』에 게재된 논문은 포함한다.

셋째, 학문 정체성의 원칙: 가능하면 지리학 전공자의 연구 성과에 한정한다. 그러나 연구목적에 비추어 필요시 예외를 둔다.

일차적으로 RISS에서 검색한 연구물 중 위의 원칙에 따라 선별한 후 구글 학술검색(<https://scholar.google>).

co.kr)과 네이버 학술정보(<http://academic.naver.com>)를 통해 추가로 보완하였다. 조사된 연구물 목록은 마지막으로 몇몇 연구자 본인에게 전달하여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물은 단행본 14권, 지리지와 보고서 5건, 박사학위논문 11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72편 등 모두 202편이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시계열적, 양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를 1945~1959, 1960~1969,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9, 2010~2018 등 7개 시기로 구분하여 지리 분야 연구 성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각 시기별로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편수와 연구자 수를 계량화하고, 지리학 내 세부 분야(자연지리, 인문지리 등)의 비중과 연구 주제 등을 확인하여 시기별 특징을 규정하였다. 해당 시기에 간행된 박사학위논문과 단행본, 지리지와 보고서도 함께 살펴보면서, 필요시 한국의 지리학계 상황과 지리학 연구 성과도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시간적 한계: 해방 이후의 연구 성과로 한정함으로써 인해 그 이전의 연구 성과는 거의 기계적으로 배제되었다.

둘째, 공간적 한계: 주로 한국 연구자들이 국내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성과만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셋째, 연구 주체의 한계: 주로 지리학 연구자의 연구 성과만 살펴보았을 뿐 지질학, 해양학, 생물학, 인류학 등 인접 분야 연구자들의 중요한 연구 성과를 도외시하였다.

넷째, 게재 학술지의 한계: 주로 전국 단위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성과만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많은 연구 성과들이 사장되었다.

무엇보다 양적인 관점에서 연구 추이를 파악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개개 연구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에까지 이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II. 제주도에 대한 지리 분야 연구의 성과와 과제: 시기별 주요 연구 추이

이 장에서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에 대한 지리 분야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시기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시기는 10년 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첫 번째 시기는 해방 직후와 1950년대의 정치·사회 상황을 고려하여 1945~1959년으로 설정하였다. 시기별 주요 연구 성과의 추이를 당시의 시대 상황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선 시계열적이고 양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1. 1945~1959: 해방과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 지리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다

해방 이후 1959년까지 한국의 지리학계에서 연구한 제주도 연구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1945년 9월 서울에서는 당시 지리학 및 지리교육계에 몸담고 있던 인사 20여명이 <조선지리학회>를 창립하였으며, 이는 1949년 현재의 <대한지리학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학회가 창립됨으로써 해방 공간의 혼돈 속에서도 지리학 학술 연구와 지리교육 활동이 시작되었다((사)대한지리학회, 2016).

지리학 전문 학회의 창립과 더불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1946)과 경북대학교 사범대학(1947)에 지리교육과가 설립되고, 이어 이화여대(1951), 건국대(1956), 경희대(1958), 서울대 문리대(1958)에 지리학 관련 학과가 연이어 설립되면서 제도권 내에 지리학 연구기반이 구축되어 갔다. 그러나 당시 대학에 재직하던 지리학 관련 교수는 10여명(이지호, 김상호, 육지수, 김경성, 강석오, 김연옥, 박노식, 이봉수, 홍경희, 홍순환 등)에 불과하였으며, 대학원 과정은 아직 개설되지 않았고 전문 학술지도 간행되지 않아 연구여건은 매우 취약한 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 대한 연구는 관심은 있어도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시기 독일의 지리학자 라우텐자흐(Hermann Lautensach: 1886-1971)가 직접 한반도 전역을 답사한 후 저술한 지리지 『KOREA』(1945)를 발간한 것은 제주도 연구에도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그는 한반도를 1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 별 자연 및 인문

현상을 통합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독자적인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제주도의 크기, 형태, 지질과 지형, 식생, 기후, 인구, 산업, 풍속, 취락,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지세도, 지질 단면도, 취락 분포도 등 3장의 지도와 함께 제주도 취락 내의 도로, 남원읍 하효리 현무암층 협곡(쇠소깍), 현무암 화산추(오름), 그리고 한라산의 백록담을 촬영한 사진 4매를 게재하고 있다.

2. 1960~1969: 식민시대 일본인들의 연구 성과로부터 학문적 해방을 시도하다

1960년대에는 4명의 연구자가 4편의 제주도 관련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다. 지형·지질 분야 2편, 정치·군사 및 취락 분야가 각 1편씩이다. 양적으로 자연지리와 인문지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지리학 전문 학술지에 최초로 발표된 제주도 관련 연구는 지형과 지질을 중심으로 다룬 제주도의 자연지리 논문(김상호, 1963)이다. 저자는 1959년 제주도종합 학술조사단 자연지리 분야 책임자로 참여하여 제주도 곳곳을 답사한 경험을 토대로 논문을 작성하였다. 제주도의 지질에 관해서는 1920-1930년대 일본 지질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고 있지만, 기존의 지질학 일반도의 연구와 논의에서 벗어나 제주의 측화산과 백록담, 하천, 지하수, 폭포, 용암동굴, 貝殼砂 등 지형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간행된 최초의 지리학 학술지에 게재된 최초의 자연지리 논문이며, 학술지 맨 앞에 게재되었다는 상징적 의미도 가진다.

제주도의 지질 전반을 간략하게 소개한 연구(우락기, 1966)와 군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식품가공업 발전 방안을 모색한 연구(홍시환, 1968), 그리고 제주도의 취락 입지 요인과 변천과정을 다룬 연구(오홍석,

1969)도 주목된다. 특히 오홍석의 연구는 제주도 전통 취락의 입지요인과 변천과정을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세밀하게 조명하면서, 일제 강점기를 기준으로 취락 입지요인이 자연적 요인보다 인문·사회적 요인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외부 관찰자의 시선이 아니라 연구 지역에서 살아온 내부자의 시선과 논리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제주도에 대한 지리 분야의 연구는 무엇보다 연구 성과가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지형과 지질 등 자연지리 분야는 여전히 식민지 시대 일본인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3. 1970~1979: 소수의 지리학자가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다

1970년대에는 5명의 연구자가 7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자원 개발 2편을 비롯하여 정치·군사, 화산지형, 문화, 인구, 농업 분야가 각 1편씩으로,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연구자 수는 약간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연구 주제는 보다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자연지리 분야보다 인문지리 분야의 연구 논문이 많은 것도 특기할 만하다.

무엇보다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정치·군사지리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주목된다. 홍시환(1971)은 북한과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에서 안정된 후방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휴전선과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도가 가장 안전한 후방기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당시 육군사관학교 국방지리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군수산업 육성이나 후방기지 적지로서의 제주도에 관심을 가지고 연

표 1. 1960년대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제주도 연구 논문 편수

연 도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소 계
편 수	0	0	0	1	0	0	1	0	1	1	4

표 2. 1970년대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제주도 연구 논문 편수

연 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소 계
편 수	0	1	0	1	1	0	0	0	2	1	7

구하였다. 김상호(1979)는 한국의 기저농경문화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제주도 개척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화전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당시의 토지이용도 耕牧교체방식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주교대에 재직하던 강상배(1973, 1978a, 1978b)의 연구 활동이 활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1970년대에 처음으로 제주도에 관한 지리학 박사학위논문이 출간되었다(오홍석, 1975). 오홍석은 제주도 취락에 관한 이전의 연구(오홍석, 1969)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박사논문으로 집대성하였다. 그는 제주도 취락의 성립과 발달, 형태와 기능,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는 향후 오랫동안 제주도 취락을 이해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제주도에 관한 단행본이 발간되었다(우락기, 1978). 우락기는 1965년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지역환경을 종합적으로 다룬 지리지『濟州道·大韓地誌 I』을 발간하였는데, 1978년에 이를 수정·증보하였다. 이 책은 한국의 지리학자가 최초로 제주도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지리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4. 1980~1989: 급속한 양적 증가와 지형 중심의 자연지리 연구에 집중하다

1980년대에는 모두 20명의 연구자(공저자 포함)가 25편의 논문을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이전 시기보다 연구자 수는 5배, 논문 편수는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 분야가 지형 중심의 자연지리 분야에 집중된 현상을 보인다. 전체 25편 중 15편, 즉 60%가 자연지리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기 후 연구 2편을 제외하고 13편이 지형 연구이다.

제주도에 대한 지리학 분야의 연구 논문이 1980년대에 급증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전국의 대학에 지리학과와 지리교육과가 다수 신설되고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면서 연구기반과 연구 인력풀이 확충되어온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현재 한국의 대학에는 지리학 관련 학과가 28개(지리학과 9개, 지리교육

과 및 지리교육전공 19개)가 있는데, 이중 18개가 1970~1980년대에 설립된 것이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관광 지리(송성대, 1983, 1984; 오남삼, 1987)와 제주도 기후(이승호, 1987; 문현숙, 1989)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산처리방법에 의한 토지이용도 작성과 해녀 어업에 관한 연구도 새롭게 이루어 졌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1980년대에는 국내·외에서 제주도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지리학 박사학위논문이 출간되었다. 송성대(1989)는 한국 도서지방 초옥민가의 지역성 연구에서 濟州島와 추자도, 우도를 포함한 전국의 16개 도서지방을 대상으로 초옥민가 건물의 공간구성과 형태, 외부경관, 기능 등을 직접 답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한편 캘리포니아 대학(UCLA) 지리학과에 재학 중이던 네메스(David J. Nemeth, 1987)는 1973년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제주도에 와서 생활하면서 제주도 곳곳을 탐방한 후 「제주 땅에 새겨진 신유가사상의 자취」(*Architecture of ideology: Neo-confucian Imprinting on Cheju Island, Korea*)라는 박사학위论문을 작성하여 출간하였다. 그는 당시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깨우친 저발전’(enlightened underdevelopment)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근대화라는 이름 아래 서양 문물과 가치관 중심으로 변질되어 가는 제주도의 모습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였다.

한편 건설부 국립지리원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국가사업으로 한국지리 편찬 작업을 시작하여 1986년 『韓國地誌: 地方篇 IV』(光州·全北·全南·濟州)를 간행하였다. 제주도 부분에서는 지리적 기초, 역사적 배경, 자연환경, 인구나 취락, 산업활동, 교육과 문화, 지역구분과 지역별 특색 등이 상세하게 다루어졌는데, 지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역사학, 경제학, 관광학, 사회학 전문가들이 함께 집필에 참여하였다. 제주도의 관광과 지리, 역사를 중심으로 정리한 우락기(1980)의 방대한 저서도 주목할 만하다.

표 3. 1980년대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제주도 연구 논문 편수

연 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소 계
편 수	1	2	1	1	6	3	2	5	1	3	25

5. 1990~1999: 양적 감소, 여전히 지형 중심의 자연지리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1990년대에는 15명의 연구자(공저자 포함)가 모두 20편의 논문을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이전 시기에 비해 연구자 수는 25%, 논문 편수는 20%나 감소하였다. 20편의 논문 중 자연지리 분야 논문이 12편(지형 8편, 기후 4편)으로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60%를 차지한다. 인문지리 분야에서는 환경(오홍석, 1992), 민가(송성대, 1993), 지역정신과 정신문화(송성대, 1997a, 1997b), 염전과 소금생산(정광중·강만익, 1997; 정광중, 1998a), 해안경관(정광중, 1998b)과 농경지 풍경(이준선, 1999) 등 비교적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되었다. 이 중 제주도의 농경지를 둘러싼 돌담과 삼나무 울타리를 프랑스 브레타뉴 지방의 보카쥬 경관, 곧 생울타리 풍경과 비교 연구한 이준선의 논문은 제주도과 해외지역을 처음으로 비교한 연구로서 특기할 만하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지리학자가 연구한 관광지리 박사학위논문이 출간되었다(오남삼, 1991). 오남삼은 서귀포시를 사례 지역으로 관광지 주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주 사람들의 정신문화를 다룬 단행본도 출간되었는데, 『제주인의 해민정신: 정신문화의 지리학적 요해』(송성대, 1996)가 그것이다. 송성대는 이 저서에서 제주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져온 정신문화를 ‘균분상속제’와 ‘개체적 대동주의’로 정리하고, 글로벌 시대에 제주인들이 지향해야 할 정신문화로 ‘해민정신’(Seamanship)을 제시하고 있다.

6. 2000~2009: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구조적 변화를 이룬다

2000년대 첫 10년 동안 42명의 연구자(공저자 포함)가 53편의 논문을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이전 시

기보다 연구자 수와 논문 편수 모두 2.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전 시기들과는 달리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논문 비중이 약 3:7로 인문지리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연구 주제가 매우 다양해졌다는 점을 특색으로 꼽을 수 있다. 풍수(송성대, 2000, 2002; 네메스, 2002), 신화와 설화(송성대·김정숙, 2000; 이덕안, 2005), 용기(송성대·오영심, 2003), 문학지리(강치영·권상철, 2006; 오홍석, 2006), 다문화(박경환, 2006), 장수마을(정광중, 2003; 송경언·박삼옥·정은진, 2006), 생태관광(고선영, 2009)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함으로써 제주도 연구의 범역을 대폭 확장하였다. 또한 기후 특성과 민가 경관(김기덕·이승호, 2001), 곳자왈과 제주인의 삶(정광중, 2004), 한라산과 도민 문화(정광중, 2006), 기상재해와 관민의 대응 양상(김오진, 2008) 등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경계를 넘어 융합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도 등장하였다.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학문 간 경계를 넘어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등장한 것은 이 시기 제주도에 대한 지리학 분야의 연구가 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에 제주도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것은 2000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 제29차 세계지리학대회(IGC)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해 8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세계지리학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수 천 명의 지리학자와 지리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는데, 제주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주관: 권상철) 세션과 한라산 답사(안내: 김태호, 공우석, 권상철, 손명철, 송성대)가 진행되었다. 실제로 이 대회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지리학 연구가 매우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이 시기에 3편의 제주도 관련 박사학위논문이 집필

표 4. 1990년대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제주도 연구 논문 편수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소 계
편 수	1	1	2	1	1	2	3	4	3	2	20

표 5. 2000~2009년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제주도 연구 논문 편수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 계
편 수	2	6	3	8	5	2	10	6	8	3	53

되었는데, 어촌 관광(송경언, 2002)과 지속가능한 생태 관광(오정준, 2003), 그리고 조선시대 제주도의 기후와 주민의 대응(김오진, 2009)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송성대(2001)는 이전에 출간한 『제주인의 해민정신』을 수정·증보하여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로, 오정준(2004)은 본인의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의 이론과 실제: 제주사회와 제주관광의 변화』를, 그리고 오홍석(2009)은 『문학지리: 문학의 터전·그 지리적 특성』을 각각 간행하였다. 특히 한라산 연구총서의 일환으로 『한라산의 인문지리』(정광중·오상학·강만익·진관훈, 2006)가 출간되어 한라산에 대한 인문지리적 접근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한국지리지: 전라·제주 편』(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04)과 『제주도지: 제1권 지리 편』(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이 간행되었다.

7. 2010~2018: 지리학의 응용성과 사회적 적실성을 강화하다

이 시기엔 36명의 연구자(공저자 포함)가 63편의 논문을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이전 시기보다 연구자 수는 감소했으나 논문 편수는 증가하였다. 이 시기는 10년이 아니라 8년 남짓한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논문의 양적 증가는 괄목할 만하다.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비율이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약 3:7을 보이고 있으나, 자연지리 논문 중 기후 분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0%를 상회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처럼 최근 들어 연구 논문이 증가하는 것은 제주대학교 지리학 관련 학과의 교수진이 확충되고,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면서 연구기반이 구축되고 연구 인력 풀이 풍부해진 데에 어느 정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체 63편의 논문 중 제주대 전·현직 교수와 대학원 졸업생의 논문이 49편으로 약 78%를 차지한다. 자연지리 중 기후 분야 논문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도 이 시기에 기후학 전공 교수를 채용한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어도 영유권 분쟁(송성대, 2010), 지오파크 콘텐츠 개발(권동희, 2011), 물의 신자유화(권상철, 2012), 자연해설탐방 프로그램 개발(김태호, 2012c), 창조도시(권상철, 2013), 꽃자왈(정광중, 2012, 2017a), 귀농·귀촌(부혜진, 2015, 2018), 공유자원 관리(김권호·권상철, 2016), 국제자유도시와 신자유주의 예외공간(이승욱·조성찬·박배균, 2017) 등 사회적 응용성과 적실성이 높은 주제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이는 자연지리 보다 인문지리 논문이 많아지고, 인문지리 중에서도 사회과학적 문제의식과 접근방식이 더욱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 시기는 연구논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박사학위논문과 단행본, 그리고 지리지가 발간되었다. 일제시기 제주도 마을 공동목장조합(강만익, 2011), 제주도 방언의 언어지리학(김순자, 2011),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김범훈, 2014), 제주도 발달의 존재형태(강성기, 2016) 등이 박사학위논문으로 연구되었다. 단행본으로는 『두 개의 얼굴 이어도』(송성대, 2015), 『제주 생활사』(고광민, 2016), 『드론의 경관지형학: 제주』(권동희, 2017) 등의 저서가 출간되었으며, 국토교통부 국립지리정보원에서는 『한국지리지: 제주특별자치도』(2012)를 다른 시·도와 통합하지 않고 독립된 지리지로 발간하였다.

8. 소결: 지속적인 양적 증가와 질적, 구조적 변화

지리학 분야에서 제주도에 대한 연구는 해방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급속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연구물의 형태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주를 이루며 단행본과 지리지, 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등 다양하다. 해방 이후 시기별 주요 연구 추이를 살펴보는 일은 지리 분야 연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부터 한국 전쟁을 겪은 1950년대까지의 한

표 6. 2010~2018년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제주도 연구 논문 편수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소 계
편 수	7	6	8	11	6	5	12	6	2	-	63

국의 지리학 연구자가 연구한 제주도 연구 성과를 찾아 보기 어렵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대학에 지리학 관련 학과가 설립되고 교수진이 충원되었으나,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를 연구하기에는 연구 인력이 부족하고 현장 접근성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일의 지리학자 라우텐자흐가 1933년 한반도 전역을 답사하고 저술한 종합 지리지『KOREA』(1945) 속에 제주도가 독립된 지역으로 설정되어 기술되었다. 그는 제주도 곳곳을 탐사하고 한라산 정상을 올랐으며, 백록담과 오름, 남원의 쇠소깍, 제주목의 민가와 돌담 등 귀중한 사진을 남기기도 하였다.

1960년대는 식민지 시대 일본인들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면서도 이들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모두 4편의 논문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분야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1970년대는 소수의 지리학자가 비교적 다양한 연구 주제를 탐색하였다. 5명의 연구자가 7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는데, 자원개발을 비롯하여 정치·군사, 화산지형, 문화, 인구, 농업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였다. 이 시기에 최초로 제주도 취락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이 출간되었으며, 개인 연구자가 집필한 최초의 지리지도 간행되었다.

1980년대는 연구자 수와 논문 편수가 모두 급증하였다. 공저자를 포함하여 20명의 연구자가 25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연구 분야가 지형 중심의 자연지리 분야에 편중된 현상을 보인다. 관광지리와 기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토지이용과 해녀에 관한 연구도 시작되었다.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방의 초옥민가와 제주 땅에 새겨진 신유가사상과 풍수지리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이 각각 국내·외에서 출간되었으며, 국가가 편찬한 한국지리지에 제주도가 호남 지역과 함께 포함되어 저술되었다.

1990년대는 연구자 수와 논문 편수 모두 약간의 감소 추이를 보이는데, 연구 주제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지형 중심의 자연지리 분야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인문지리 분야에서는 환경, 지역정신과 정신문화, 소금생산, 농경지 풍경 등 비교적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되었다. 처음으로 관광지리 박사학위논문이 출간되었으며, 제주인들의 정신문화를 연구한 단행본도

간행되었다.

2000년대는 급속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구조적 변화를 이루었다. 42명의 연구자가 53편의 논문을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이전 시기보다 2.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전 시기들과는 달리 인문지리 논문이 약 70%를 차지하는 점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풍수, 신화와 설화, 용기, 문학지리, 장수마을, 생태관광 등 연구 주제가 매우 다양해졌으며, 기후 특성과 민가 경관, 꽃자왈과 주민의 삶, 한라산과 도민 문화, 기상재해와 주민의 대응 양상 등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경계를 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이렇게 제주도에 관한 연구가 양적, 질적 성장을 한 것은 2000년 서울과 제주 등에서 열린 세계지리학회회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에 어촌 관광,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후와 주민의 대응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논문이 출간되었으며, 한라산에 대한 인문지리를 다룬 단행본도 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2010년대에는 사회적 응용성과 적실성을 지향하는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36명의 연구자가 63편의 논문을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여 괄목할 양적 증가를 보여준다.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비율은 약 3:7이며, 이전과 달리 자연지리 논문 중 기후 분야가 약 40%를 상회한다. 이같은 양적 증가는 제주대학교 지리학 관련 학과의 교수진이 확충되고,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면서 연구기반이 구축되고 연구 인력풀이 풍부해진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도 영유권 분쟁, 지오파크 콘텐츠 개발, 물의 신자유화, 자연해설탐방 프로그램 개발, 창조도시, 귀농과 귀촌, 공유자원 관리, 국제자유도시와 신자유주의 예외 공간 등 사회적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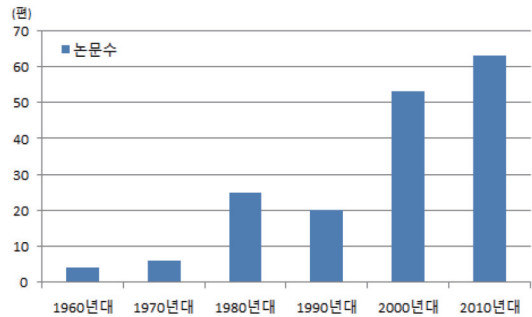


그림 1. 해방 이후 시기별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제주도 연구 논문 수

성과 적실성이 높은 연구 주제들이 많이 다루어졌다. 마을 공동목장, 제주도 방언, 지오 투어리즘, 발달에 관한 박사학위논문들이 출간되고, 제주 생활사를 폭넓게 다룬 단행본이 출간되었으며, 제주도를 독립적으로 다룬 한국지리지도 간행되었다. 2020년대의 연구 추이가 기대된다.

III. 맺는말: 향후 과제를 생각하며

제주는 한반도 육지부와 멀리 떨어진 도서이다.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화산지형과 아열대 기후라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고유한 생활문화를 일구어온 독자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지리학, 특히 지역지리 연구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연구는 해방 이후 지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제주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려 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제주도에 대한 지리학 분야의 연구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지리학 분야의 연구 추이를 시기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한국의 지리학자가 연구한 제주도 연구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1960년대는 식민지 시대 일본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인용하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1970년대는 소수의 지리학자가 비교적 다양한 연구 주제를 다루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 연구 성과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1990년대에는 지리학 연구가 다소 정체를 보이다가 2000년대에 다시 커다란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최근 2010년대에는 사회적 응용성과 적실성을 지향하는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여기서는 맺는말을 대신하여 3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도내 지리학 연구 기반의 확충과 연구 인력풀의 확대가 필요하다.

2000년 이후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가 급증하였다고는 하나, 2000~2017년 기간에도 매년 평균 6.3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제주도내에

전문적인 연구 기반이 취약하고 연구 인력이 부족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도에는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에 지리교육전공이, 교육대학에 사회과교육전공이 설치되어 지리학 전공 교수 6명이 재직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는 아직 지리학 석사과정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박사과정에만 사회교육학부에 지리교육전공과 초등사회과교육전공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박사과정에서 4명의 박사를 배출하였지만 2명은 교과교육전공자(교육학박사)이다. 도내에 지리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는 제주대 교수 6명을 포함하여 모두 11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중 2명은 초·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우선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지리학 석·박사 과정을 설치하고, 여건이 허용된다면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지리학과를 설치하여 연구기반과 연구 인력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계통지리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지리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지리학은 오래 전부터 한 지역의 자연과 인문 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지역지리학으로 출발하였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지리학이 발달한 유럽 국가들은 모두 지역지리학 연구가 오랫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자국과 세계 여러 지역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리학계는 해방 이후 미국의 계통지리 중심의 연구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아 현재까지도 지역지리 연구가 매우 미흡한 편이며, 초·중등학교 지리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도 계통지리 중심이다. 제주도에 대한 지리학 분야의 연구도 계통지리적 접근이 대다수이다. 지역학으로서의 제주학을 고려할 때 지역지리 연구는 더욱 필수적이다. 1945년 출간된 라우텐자흐의『KOREA』를 계승하는 종합지리지『제주도』(가칭)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셋째, 지리학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과 학문과의 학제적(interdisciplinary), 통섭적(consilience) 연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대단히 복잡하고 중층적이며 다면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히 한국의

학계는 자신들이 수 백년간 구축해놓은 분과 학문의 울타리 속에 갇혀 사물과 현상의 온전한 모습을 보기 어렵다. 지리학계도 예외는 아니다. 서로의 학문적 정체성은 인정하되 경계를 약화시키고 장벽을 충분히 낮춰 상호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실세계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다 투명하고 폭넓게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해방 이후 지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제주도 연구 성과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 추이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양적 변화만을 살펴봄으로써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각각의 연구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지역학으로서의 제주학뿐만 아니라 서울학, 부산학, 호남학 등 여타 지역학 연구에서 지리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는 일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이 연구가 한국의 지역지리 연구와 지역학 연구에 작지만 소중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文 獻

- 강만익, 2011, 일제시기 제주도 마을 공동목장조합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강만익, 2013, “한라산지 목축 경관의 실태와 활용 방안,”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3): 93-112.
- 강민정·권상철, 2007, “제주시 도시화의 공간적 특성: 인구와 지가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3): 55-67.
- 강상배, 1973, “제주도의 자원에 대한 연구,” (제주교대) 논문집 3: 53-82.
- 강상배, 1978a,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과 특수자원의 개발 이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논문집 8(1): 231-246.
- 강상배, 1978b, “제주도의 지역별 인구증감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1960-1975,” (제주교대)논문집 8: 73-103.
- 강상배, 1980, “제주도 남북사면 지형의 비교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5(1): 157-181.
- 강상배, 1982, “제주도 인구의 성비 변화에 대한 연구,” (제주교대)논문집 12: 53-70.
- 강상배, 1984, “제주도의 지역별 인구증감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II): 1960-1980,” (제주교대)논문집: 14, 11-45.
- 강상배, 1992, “제주도의 자연환경: 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제주도연구 9: 65-83.
- 강성기, 2012, “제주도 서부지역의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지리적 해석: 한경면 고산리를 사례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2(3): 99-119.
- 강성기, 2016, 제주도 농업환경에 따른 발달의 존재형태와 농가인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부 박사학위논문.
- 강성기·정광중, 2016, “제주도 구좌읍 하도리 발달의 존재형태와 농가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4): 809-825.
- 강승삼, 1987, “제주도 지형·지질연구의 과거·현재와 전망,” 제주도연구 4: 147-172.
- 강치영·권상철, 2006,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연구,” 탐라문화 29: 7-43.
-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04, 한국지리지: 전라·제주 편.
-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6, 한국지리지 지방편 IV(광주·전북·전남·제주).
- 고광민, 2016, 제주 생활사, 한그루.
- 고선영, 2009,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생태관광,”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2): 215-225.
- 고영자 편역, 2015, 구한말 佛語·英語 문헌 속 제주도 (1893~1913), 제주시우당도서관.
- 고영자 편역/데이비드 네메스 서문, 2013, 서양인들이 남긴 제주견문록(1845~1926), 제주시우당도서관.
- 고영자 편역/손명철 감수, 2014, 서양인들이 남긴 제주도 항해·탐사기(1787~1936), 제주시우당도서관.
- 고의장, 1984, “제주도와 울릉도의 지형경관에 대한 비교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9(1): 481-506.
- 공우석, 1998, 제주도 기온 온난화가 한라산 고산식물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1-41.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2, 한국지리지: 제주특별자치도.
- 권동희, 1996, “화성암과 제주도의 용암동굴 연구,” 동굴

- 45: 49-63.
- 권동희, 2007,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형관광자원: 세계 자연유산 지정 후보지로서의 재조명,”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7(1): 9-20.
- 권동희, 2010, “천연기념물 지형의 지리학적 분석,”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0(1): 17-26.
- 권동희, 2011, “제주도 지오파크의 발전적 콘텐츠 개발 -산방산, 용머리 해안을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18(3): 1-10.
- 권동희, 2012, “제주도 지형지,”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2(1): 1-12.
- 권동희, 2016, “지리학에서의 드론 사진 활용 -제주도 지형 사례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6(4): 1-18.
- 권동희, 2017, 드론의 경관지형학: 제주, 푸른길.
- 권상철, 2001, “제주도 관광개발과 환경보존의 상충,” 자연보존 114: 51-55.
- 권상철, 2003a, “인구이동과 인적자원 유출: 제주지역 유출, 유입 인구의 속성 비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6(2): 59-73.
- 권상철, 2003b, “제주시 인구이동 특성과 지역발전: 유입, 유출인구의 사회경제적 속성 비교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4: 85-107.
- 권상철, 2008, “제주도 발전전략의 교호적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43(2): 171-187(영문).
- 권상철, 2012, “물의 신자유주의화 -상품화 논쟁과 한국에서의 발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3): 358-375.
- 권상철, 2013, “창조도시의 지역적 변용: 제주 세계평화의 섬과 평화산업 사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2): 17-29.
- 권상철, 2015, “대안 공동체 경제 논의와 제주 지역 사례: 마을 공동 어장과 이시돌 목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4): 395-414.
- 김경훈·홍시환·유충길, 1996, “백두산과 제주 화산도에 있는 용암동굴의 X선 분석,” 동굴 46: 9-31.
- 김권호·권상철, 2016, “공동체 기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제주 해녀의 공유자원 관리 사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 49-63.
- 김기덕·이승호, 2001, “기후 특성과 관련된 제주도의 민가 경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3): 29-43.
- 김도정, 1973, “한국의 화산지형,” 대한지리학회보 7: 1-9.
- 김동진·강만익, 2015,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김만규·박종철·이성우, 2010, “제주도 서부 지역 고가수조 경관의 형성 배경,”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6): 623-634.
- 김명광·김오진·이현영, 2007, “제주도에서 관측된 산성비 사례 연구,” 기후연구 2(1): 33-49.
- 김민철·부창산·김영훈, 2008, “제주 지역 내 중국 및 일본 관광객의 선택속성의 차이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2): 126-140.
- 김범훈, 2014, “제주와 미래 가치: 제주 관광의 지속가능성과 대안적 모델로서의 지오투어리즘,” 탐라문화 44: 83-120.
- 김범훈, 2014,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성산일출봉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부 박사학위논문.
- 김범훈·김태호, 2007, “제주도 용암동굴의 보존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6): 609-622.
- 김상호, 1963, “제주도의 자연지리,” 지리학 1: 2-14.
- 김상호, 1979, “한국농경문화의 생태학적 연구 -기저농경문화의 고찰-,” 사회과학논문집(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 81-122.
- 김순자, 2011, 제주도 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오진, 2008, “조선시대 제주도의 기상재해와 관민의 대응 양상,” 대한지리학회지 43(6): 858-872.
- 김오진, 2009, 조선시대 제주도의 기후와 그에 대한 주민의 대응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우관·전영권, 1987, “제주도 기생화산의 사면형태,” 지리학논구 8: 47-68.
- 김지은·양보경, 2010,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제주의 지명과 형태,” 문화역사지리 22(2): 38-49.
- 김태호, 2001, “한라산 백록담 화구저의 유상구조토,” 대

- 한지리학회지 36(3): 233-246.
- 김태호, 2003a, “제주도 해안지대의 지형분류,” 한국지형학회지 10(1): 33-47.
- 김태호, 2003b, “한라산과 다랑쉬 오름 등산로의 답압에 의한 토양 압밀현상,”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2): 169-179.
- 김태호, 2006a, “한라산 유상구조토의 붕괴프로세스와 요인,”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4): 437-448.
- 김태호, 2006b, “한라산 아고산 초지대 나지의 확대속도와 침식작용,” 대한지리학회지 41(6): 657-669.
- 김태호, 2009, “제주도 산지습지의 지형특성,” 한국지형학회지 16(4): 35-45.
- 김태호, 2010, “한라산 아고산대에서의 사면 물질 이동,” 대한지리학회지 45(3): 375-389.
- 김태호, 2012a, “용암류 특성에 의한 제주도 폭포의 유형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2): 129-140.
- 김태호, 2012b, “한라산 백록담 서북벽 암운의 향별 특성,” 한국지형학회지 19(3): 109-121.
- 김태호, 2012c, “한라산의 지형 특성을 활용한 자연해설 탐방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지형학회지 19(2): 17-32.
- 김태호, 2013, “한라산 아고산대의 동결기 기온 및 지온 변화,” 한국지형학회지 20(3): 95-107.
- 김태호, 2014, “탐라십경도에 표현된 제주도의 지형경관,” 한국지형학회지 21(4): 149-164.
- 김태호, 2016, “탐라순력도의 지형경관에 투사된 지형 인식,” 탐라문화 51: 177-206.
- 김태호, 2017, “옛 그림 속 제주의 지형경관 그리고 지형 인식,” 대한지리학회지 52(2): 149-166.
- 김태호·안중기, 2008a, “제주도 스킨리온의 유출특성,” 한국지형학회지 15(2): 55-65.
- 김태호·안중기, 2008b, “한라산 구린굴의 천장 함몰로 인한 병문천의 유로 변경,” 대한지리학회지 43(4): 466-476.
- 데이비드 네메스 지음/고영자 번역/손명철 감수, 2016, 新제주순력담(1973~1974), 제주시우당도서관 (David J. Nemeth, 2014, Jeju Island Rambling: Self-exile in Peace Corps, 1973-1974).
- 데이빗 네메스, 2002, “풍수지리와 장묘문화: 제주도 풍수의 중요성,” 탐라문화 22: 171-183.
- 문현숙, 1989, “제주와 서귀포의 기후 비교연구,” 국토지리학회지 14(1): 51-73.
- 박경·손일·장은미, 2004, “제주 김녕-월정 사구의 발달 과정에 관하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4): 851-864.
- 박경환, 2006, “다문화주의 없는 다문화 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재세계화를 위한 이론적 함의,”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3): 69-78.
- 박동원, 1985, “제주도의 해안과 산지지형,” 제주도연구 2: 321-322.
- 박동원·오남삼·박승필, 1984, “가파도와 마라도의 지형,” 제주도연구 1: 365-382.
- 박병수, 1981, “제주도 용암동굴의 성인과 특성,” 동굴 7: 15-16.
- 박병수, 1984, “제주도 용암동굴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사회문화연구 3: 161-177.
- 박승필, 1986, “제주도 기생화산에 관한 연구 -지형과 분포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3: 373-378.
- 부혜진, 2015,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른 제주도 촌락 지역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2): 226-241.
- 부혜진, 2018, “창조계층으로서 문화예술인들의 제주 이주와 그것이 지역 관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1): 18-31.
- (사)대한지리학회, 2016, 대한지리학회70년사: 1945~2015.
- 서종철·손명원, 2007, “제주 사계해안의 지형시스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1): 32-42.
- 손명철, 2017, “지역지리 연구의 주요 원리와 제주 지역 연구에 주는 함의,” 문화역사지리 29(3): 78-91.
- 송경언, 2002,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와 공간이용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송경언, 2003,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에 따른 공간이용 변화 과정,” 대한지리학회지 38(1): 87-103.
- 송경언·박삼옥·정은진, 2006, “강원·제주 장수지역에 있어 서비스기능의 생산연계와 혁신네트워크: 호남 장수지역과의 비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1): 97-122.
- 송성대 등, 2010, 제주지리론, 한국학술정보(주).

- 송성대, 1983, “제주시의 관광기능성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제주대논문집 16(2): 603-632.
- 송성대, 1984, “관광자원 분포성향에 의한 제주도의 지역별 관광성,” 제주대논문집 18(2): 523-549.
- 송성대, 1985, “제주시의 인구성장에 관한 고찰,” 제주대 논문집 20(2): 241-257.
- 송성대, 1989, 한국 도서지방 초옥민가의 지역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송성대, 1993, “제주도의 풍토주가: 초옥민가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도연구 10: 99-174.
- 송성대, 1996, 제주인의 해민정신: 정신문화의 지리학적 요해, 제주문화.
- 송성대, 1997a,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과 지역정신,” 탐라문화 18: 245-273.
- 송성대, 1997b, “제주인의 해민정신: 정신문화의 지리학적 요해,” 국토지리학회지 29(1): 138-139.
- 송성대, 2000, “제주 육대음택명혈지의 경관해석과 메타언어에 대한 시론,” 탐라문화 21: 135-176.
- 송성대, 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제주인의 해민정신 개정증보판), 도서출판 각.
- 송성대, 2002, “풍수지리와 장묘문화: 풍수지리연구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일고,” 탐라문화 22: 185-209.
- 송성대, 2009, “제주 해민들의 이어도토피아,” 문화역사지리 21(1): 170-190.
- 송성대, 2010, “한·중 간 이어도 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45(3): 414-429.
- 송성대, 2014, 이어도 100문 100답, (사)이어도연구회.
- 송성대, 2015, 두 개의 얼굴 이어도, (사)이어도연구회.
- 송성대·강만익, 2001, “조선시대 제주도 관영목장의 범위와 경관,” 문화역사지리 13(2): 143-162.
- 송성대·김정숙, 2000,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문화역사지리 12: 1-17.
- 송성대·오영심, 2003, “제주도 전통사회의 옹기 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 대정읍 구역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23: 65-86.
- 안중기·김태호, 2006, “한라산 아고산 초지대 小流域의 물수지,” 대한지리학회지 41(4): 404-417.
- 안중기·김태호, 2015, “제주도 증산간지대의 지표수 이용시설에 대한 수문지형학적 접근,” 한국지형학회지 22(1): 17-27.
- 양보경, 2001, “제주도 고지도의 유형과 특징,” 문화역사지리 13(2): 81-102.
- 오남삼, 1986, “화산경관 분출 순서 연구: 화순지역 중심,” 제주대 관광개발연구소 논문집 3(1): 21-53.
- 오남삼, 1987, “지정문화재의 관광자원론 고찰: 제주도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6: 203-237.
- 오남삼, 1988, “제주도 해안지형에 대한 일고찰,” 탐라문화 7: 181-202.
- 오남삼, 1991, 관광지 주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연구: 서귀포시를 사례 지역으로 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오상학, 2004,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시계열적 고찰,” 탐라문화 24: 131-152.
- 오상학, 2006, “조선시대 한라산의 인식과 그 표현,” 국토지리학회지 40(1): 127-140.
- 오상학, 2010, “고려시대 제주 법화사의 역사지리적 고찰,” 국토지리학회지 44(1): 51-62.
- 오상학, 2011, “한·중·일 고지도에 표현된 이어도 해역 인식,” 국토지리학회지 45(1): 73-92.
- 오상학, 2013, “중국 고지도에 표현된 제주도 인식의 변천,” 문화역사지리 25(2): 1-14.
- 오상학, 2016a, “서양 고지도에 표현된 제주도,” 한국고지도연구 8(2): 51-72.
- 오상학, 2016b, “목판본 「탐라지도」의 내용과 지도학적 특성,” 한국지도학회지 16(2): 13-26.
- 오승남·권상철, 2010, “지방자치단체의 장소마케팅 유형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34: 157-189.
- 오영숙·최광용, 2014, “온난수송대 접근에 의한 한라산 봄철 호우 현상의 종관적 특징,” 기후연구 9(3): 193-205.
- 오일환·김기수, 2004, “18세기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제주도 -형태와 명칭 표기 변화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6(1): 113-122.
- 오정준, 2003, “제주도 지역개발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37(2): 139-154.
- 오정준, 2003,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연구:

- 생태관광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과 박사학위논문.
- 오정준, 2004, 지속가능한 관광의 이론과 실제: 제주사회와 제주관광의 변화, 백산출판사.
- 오홍석, 1969, “제주도의 부락 입지에 관한 연구 -변천과정과 입지요인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1): 41-54.
- 오홍석, 1975,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오홍석, 1984, “법선 항해시대의 濟京海路,” 제주도연구 1: 97-144.
- 오홍석, 1987, “제주도 취락연구의 동향과 과제,” 제주도연구 4: 65-75.
- 오홍석, 1992, “제주도의 환경보전과 관리,” 제주도연구 9: 85-99.
- 오홍석, 2006, “제주도의 지역특성과 문학-예술적 표현,” 탐라문화 29: 161-192.
- 오홍석, 2009, 문학지리: 문학의 터전·그 지리적 특성, 부연사.
- 우락기, 1966, “제주도의 지질,” 제주시 4: 42-47.
- 우락기, 1978, 濟州道: 大韓地誌 I, 성민사.
- 우락기, 1980, 국민관광 I 제주도, 한국지리연구소.
- 원학회, 1985, “제주 해너어업의 전개,” 국토지리학회지 10(1): 179-198.
- 이 전, 2016, “제주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2): 369-382.
- 이덕안, 2005, “도서지방의 설화에 담긴 지리적 의미 찾기 -제주도, 흑산도, 비금도를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39(4): 501-517.
- 이성우·김만규, 2012, “제주도 해안마을 울담의 높이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7(3): 390-406.
- 이승욱·조성찬·박배균, 2017, “제주 국제자유도시, 신자유주의 예외 공간, 그리고 개발자치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2): 269-287.
- 이승호, 1987, “제주도 해안지역의 겨울철 바람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4: 219-259.
- 이승호, 1996, “제주도에 분포하는 편형수에 의한 탁월풍의 추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4(1): 121-133.
- 이승호, 1999, “제주도 지역의 강수 분포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34(2): 123-136.
- 이승호·이현영, 1995, “제주도 감귤 과수원의 야간 기온 분포(II),” 대한지리학회지 30(3): 230-241.
- 이자원, 2015, “제주도 가시리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한국형 마을 만들기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9(4): 425-437.
- 이정면, 1981, “제주도 토지이용도 작성에 있어서의 전산처리방법,” 국토지리학회지 6(1): 17-30.
- 이준선, 1999, “프랑스와 한국의 농경지 풍경 비교: Bretagne와 제주도 경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7(2): 825-848.
- 이현영·이승호·김미정, 1995, “제주도 감귤 과수원의 야간 기온 분포(I), 『환동해권의 시간과 공간의 교감』(목지 오홍석 박사 화갑기념논문집1), 549-659.
- 장보웅, 1974, “제주도 민가의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9(2): 13-31.
- 장상섭, 1989, “제주도 남해안의 SEA STACK과 구조와의 관계,” 국토지리학회지 14(1): 91-109.
- 장영진, 2013, “계약생산과 초국적 농식품 체계: 제주도 제스프리 골드키위 농업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4): 585-596.
- 정광중, 1998a, “제주도 구엄 마을의 돌소금 생산구조와 특성,” 국토지리학회지 32(2): 87-104.
- 정광중, 1998b, “제주도 해안지역의 경관적 특성,” 사진지리 7: 61-74.
- 정광중, 2002, “탐라시대의 지리적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기반,” 초등교육연구 7: 35-39.
- 정광중, 2003, “장수마을의 지리적 환경과 제조조건에 관한 시론적 연구,” 제주도연구 23: 37-65.
- 정광중, 2004, “곶자왈과 제주인의 삶,” 제주교대논문집 33: 41-65.
- 정광중, 2006, “한라산과 제주도민의 문화,”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6(2): 1-18.
- 정광중, 2007, “제주 마을의 지리적 환경 연구: 삼도 1등을 사례로,” 제주교대논문집 36: 13-52.
- 정광중, 2008a, “딕수리의 인문지리적 환경,” 초등교육연구 12: 1-22.
- 정광중, 2008b, “마을 만들기와 산지천변 야시장 조성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3: 1-33.

- 정광중, 2011a, “제주도 대정읍성의 지리적 환경 고찰,”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2): 43-61.
- 정광중, 2011b, “제주도 농어촌 지역 마을자원의 발굴과 활용에 대한 시론적 연구 -애월읍 신엄마을을 사례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3): 153-170.
- 정광중, 2011c, “제주시 용담동-도두동 해안도로변 생활 문화유적의 잔존실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4): 53-68.
- 정광중, 2012, “제주의 숲, 곳자왈의 인식과 이용에 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2(2): 11-28.
- 정광중, 2013a, “마라도의 지리적 환경과 지역환경 조성 방안,”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2): 1-20.
- 정광중, 2013b, “제주도 애월읍의 지리적 환경과 인구변화의 특징,”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3): 57-79.
- 정광중, 2014, “제주 선홍 곳자왈 내 역사문화자원의 유형과 평가,”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4(2): 1-20.
- 정광중, 2015, “저지-청수 곳자왈과 그 주변 지역에서의 숲 생산 활동,” 문화역사지리 27(1): 83-111.
- 정광중, 2016a, “숲 제조 재현과정과 현재적 의미 탐구 -제주지역의 곰 숲 제조를 사례로-,” 탐라문화 53: 83-114.
- 정광중, 2016b, “제주도 생활문화의 특성과 용천수 주변 공간의 가치 탐색,” 국토지리학회지 50(3): 253-270.
- 정광중, 2017a, “제주 곳자왈의 경관 특성과 가치 탐색,” 문화역사지리 29(3): 58-77.
- 정광중, 2017b, “제주 돌담의 가치와 돌담 속 선조들의 숨은 지혜 찾기,” 제주도연구 48: 177-203.
- 정광중·강만익, 1997, “제주도 염전의 성립과정과 소금생산의 전개 -종달·일과·구엄 염전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18: 351-379.
- 정광중·강성기, 2013, “장소자산으로서 제주 돌담의 가치와 활용방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1): 99-117.
- 정광중·강성기·최형순·김찬수, 2013, “제주 선홍 곳자왈에서의 숲 생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4): 37-55.
- 정광중·오상학·강만익·진관훈, 2006, 한라산의 인문지리,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한라산총서 4).
- 정근오, 2014, “제주도 벼농사의 역사지리적 연구: 천제연 일대를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26(3): 56-72.
- 정주연·이혜은, 2013, “알뜨르 비행장이 갖는 지리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4): 29-36.
- 정현주, 2006,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으로서 생태관광의 전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3): 57-68.
-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제주도지 제1권 지리 편.
- 진중헌 외, 2018, 사잇공간? 제주 중산간지대 경관변화의 사회문화지리적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8일반기후연구지원사업단.
- 진중헌, 2016, “제주 오름에 대한 미학적 시선의 출현과 오름 ‘경관’의 형성 -김중철의 『오름나그네』 다시 읽기-,” 문화역사지리 28(4): 1-14.
- 최광용, 2011, “한라산 사면 및 고도별 기온감률 변동성,” 기후연구 6(3): 171-186.
- 최광용, 2013, “한라산의 사계절 극한강수현상 발생 패턴,” 기후연구 8(4): 267-280.
- 최광용, 2016a, “제주 지역 주민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기상 기후 정보 서비스 발굴,” 한국지리학회지 5(2): 107-119.
- 최광용, 2016b, “한라산 지역 열역학적 편 현상 발생시 종관기후 패턴,” 기후연구 11(4): 313-330.
- 최광용, 2017,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활용한 한라산 지역 기온 및 기후대 변화 전망,” 기후연구 12(3): 243-257.
- 최광용, 2018, “제주도 지역 체감온도의 시·공간적 분포 특징과 장기간 변화 경향,” 한국지리학회지 7(1): 29-41.
- 최광희·최광용·김윤미, 2014, “태풍 불라벤에 의한 제주도 방풍림 조풍(潮風) 피해,” 대한지리학회지 49(1): 18-31.
- 최재현, 2005, “국제자유도시개발의 성공적 추진: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과제와 발전전략 모색,”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3): 9-20.
- 현경희·김태호, 2001, “제주도 스킨리온의 사면발달,” 제4기학회지 15(1): 37-45.
- 홍시환, 1968, “군수산업 육성 면에서 본 제주도의 식품 가공업 개발책,” 한국군사학논집 6: 88-131.

홍시환, 1971, “안전방위면에서 본 제주도의 후방기지 화론,” 지리학보 1: 25-31.
홍시환, 1991, “제주도의 동굴 개관,” 동굴 26: 15-28.
홍시환, 1994, “제주도의 화산동굴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4: 235-245.
홍시환, 1997, “제주도의 화산동굴과 동굴지형지물 소고,” 동굴 51: 9-14.
홍시환, 2004, “제주도의 화산동굴 소고,” 동굴 62: 19-23.
홍시환·강상배, 1990, “제주도 협재굴 지대의 지형적 특성 연구,” 동굴 23: 56-70.
홍시환·鹿島愛彦·小川孝德, 1989, “제주도 화산동굴의 광물소고,” 동굴 21: 1-7.
홍시환·배두안, 1998, “제주도 빌레못 동굴의 지형지물 연구,” 동굴 53: 29-38.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2, 濟州歷史地理, 丸善株式會社(1986,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한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朝鮮總督府, 1931, 濟州島地質調查報告書.
朝鮮總督府, 1931, 濟州島地質圖.
Church, R.J.H., 1951, The French school of geography, in Taylor, G.(ed.), *Geography in the Twentieth Century*,

Methuen, 70-90.
Lautensach, Herman, 1945, *KOREA: Eine Landerkunde auf Grund eigener Reisen und der Literatur*, Leipzig: K. F. Koehler Verlag(translated by Katherine and Eckart Dege, 1988, *KOREA: A Geography Based on the Author's Travels and Literature*, Berlin: Springer-Verlag; 김종규·강경원·손명철 옮김, 2014, 코리아: 일제 강점기의 한국지리, 푸른길).
Nemeth, David J., 1987, *The Architecture of Ideology: Neo-Confucian Imprinting on Cheju Island, Kore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데이비드 네메스 저/고영자 역, 2012, 제주 땅에 새겨진 신유가사상의 자취, 제주시우당도서관).
Tacho Kim, 2008, Thufur and turf exfoliation in a subalpine grassland on Mt. Halla, Jeju Island, Korea, *Mountain Research and Development* 28(3/4): 272-278.

접 수 2018년 08월 10일
최종수정 2018년 09월 13일
게재확정 2018년 09월 14일